

<명지대학교 시각장애학생 교내편의시설 접근권 현황 보고서 및 건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서울형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실로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 시각장애 당사자인 재학생입니다.

명지대학교 학칙에는 "제4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명지대학교 자체 앱을 사용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직접 조사한 바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관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편의 시설이 있어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내역입니다.

1. 측지도

- 행정동 측지도와 점자 안내판의 왼쪽에는 측지도가 있으나, 인식하여 건물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선이 너무 약하고, 점자가 거의 없다. 지도를 살짝 양각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측지도 음성안내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고장이 나서 들리지 않았다.
- 방목학술정보관 음성안내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경상관 측지도 상 점자 안내의 점이 상당히 약하여 식별이 매우 어렵다. 측지도 음성안내 버튼을 누르니 음성안내가 나오지만, 소리가 작다.
- 본관 측지도 음성안내 버튼을 누르니 크기도 적당하고 잘 출력된다.



그림 1 경상관측지도점자높이.jpg

2. 하나은행 ATM

- 본관 1층 옆에 하나은행 ATM기에 다가갔을 때 센서 작동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아서 기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안내는 잘 출력한다.



그림 2 본관하나은행ATM가까이.jpg

3. 컴퓨터

- 방목학술정보관 3층 컴퓨터실 앞에 정보검색대 컴퓨터에 음성지원프로그램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 방목학술정보관 3층 장애인 열람실 내에 컴퓨터 3대가 있다. 컴퓨터 2대 옆에는 각각 저시력용 확대기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전용 음성지원프로그램(센스리더)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하다. 컴퓨터 화면의 글자들은 확대되어 있다. 장애인 열람실 가는 길에는 점자블록이 없어서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문 앞에 점형블록 한 개와 '장애인 열람실' 점자표지는 존재한다. 혹시 점자정보단말기를 빌릴 수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장애인 열람실에는 점자정보단말기(제품명: 한소네)가 없다고 한다.



그림 3 도서관장애인열람실눈낮이책상전체적인모습.jpg

4. 모바일 접근성

- 아이폰의 접근성(보이스오버) 사용 시, 명지대 도서관 어플에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고 계속 '명지대학교 도서관' 로고만 읽어준다. 메뉴로 이동할 수 없고 터치를 통해 다른 메뉴로 이동한다고 해도 자꾸 로고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 사이트맵에 포커싱하여 사이트맵 창을 열어도 바로 다시 닫혀 조작성이 불가능하다.
- 모바일 자가 문진표 작성시 언어 선택창에서 '한국어' 등만 적혀 있어 어떤 선택창인지 알기 어렵다.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라는 설명 문구가 필요하다.
- 모바일 명지대 홈페이지 메뉴 선택 창에서 하위항목이라고 읽어주지 않아 하위항목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메뉴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5. 교내 키오스크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내에 설치된 무인서류발급기와 무인식권발급기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기를 시각장애인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 점자라벨의 미흡함

학생회관, 방목학술정보관, 경상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점자라벨이 전혀 붙어 있지 않아서 시각장애인은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관 무인 서류발급기에는 점자라벨이 일부 붙어있었으나 음성안내가 없어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음성안내와 점자 키패드의 부재

무인식권발급기 및 무인서류발급기 공통적으로 음성안내가 없어 전맹 시각장애인이 화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고 점자 키패드가 없어 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3) 화면 확대 기능의 부재



그림 4 본관키오스크전체적인모습.jpg

화면 확대 기능(또는 큰 글씨 기능)이 없어 저시력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 학생이 화면의 내용을 읽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및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의 내용에 따라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규격이 제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들이 교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교내의 키오스크가 고시된 규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러 장애유형의 키오스크 사용을 고려한 자체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다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 구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 접근능력 차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아직도 대학교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 키오스크 현황입니다.

- 방목학술정보관(도서관) 1층에 좌석 예약 키오스크가 있으나, 터치식이라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 좌석 예약 키오스크 사용법과 어플리케이션 예약사용법이 나와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알기가 어렵다. 도서 대출 무인기가 있으나 전부 터치식이다.
- 경상관 9층 열람실 키오스크는 꺼져있지만, 전부 터치식인 기기이다.
- 학생회관 3층 학생식당 앞에 키오스크는 꺼져있었으나, 전부 터치식이다. 커피숍 '띠아모'의 키오스크도 꺼져있었지만, 전부 터치식이다.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복합기는 터치판과 장수를 누를 수 있는 점자없는 숫자키패드가 있다. 카드결제시에 터치를 이용해야 하고, 음성 안내가 없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형태의 복합기가 학교 건물 곳곳에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이용이 어렵다. 복합기에 연결된 컴퓨터에 화면낭독소프트웨어가 없어 각종 자료들을 인쇄하기는 어렵다.
- 본관 1층에 증명서발급기 키오스크가 있다. '카드투입구'와 '증명서 나오는 곳'에 점자표지가 있지만, 점이 너무 약하고 점역도 틀린 부분이 있다. 증명서 발급기 전부 터치식이다. 시각장애인은 사용하기 어렵다. 저시력용 확대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ATM기에 다가갔을 때 센서작동하여 시각장애인을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아서 기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어폰을 꽂으면 음성안내는 잘 출력한다.

명지대학교 학칙에는 "제7조(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1.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 대출기간의 연장 적용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시각장애인의 열람실 좌석 예약 및 이용과 터치로 된 사물함 이용, 시각장애인을 도서의 대출 등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접근성 개선과 같은 "4.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6. 점자표지판 부착

※ 글 아래 '[붙임1] 명지대학교 점자라벨 부착 현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그림 5 행정관엘리베이터버튼상태2층없음.jpg



그림 6 계단난간점자오류.jpg



그림 7 행정관교직원점자라벨훼손우려.jpg



그림 8 S1217점자라벨훼손위험.jpg



그림 9 본관1층화장실점자라벨모범사례.jpg



그림 10 본관6층화장실점자라벨없음.jpg

저희는 교내 주요 건물들의 점자라벨 부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본관 안에서도 여자와 남자 화장실의 점자표지판이 안 붙어있는 층이 있었습니다. 점자표지판이 붙어있는 장소가 들쭉날쭉하여 대면 수업 시 매번 바뀌는 강의실과 시험장소 변경 시에는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자표지판이 떨어져 나가는 곳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관 1층 계단 난간에 '올라감'이라고 적힌 점자표지는 거꾸로 적혀 있어 처음에는 무슨 점자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지하철 출입구처럼 난간에 '올라감'보다는 '본관 1층 올라가는 곳'이라고 적혀 있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명지대학교 학칙

"제4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7조(도서관 이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열람석
2. 장애학생 전용 사물함
3. 도서 대출기간의 연장적 용
4. 기타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 등"

"제10조(교육 기자재 보유)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교육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건의사항

- ① 본관을 제외한 각 건물별 축지도의 음성안내 버튼 수리를 요청합니다.
- ② 본관 1층 하나은행 ATM 기기 다가갔을 때 센서 작동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어폰 소켓을 안내하는 음성안내 수리를 요청합니다.
- ③ 장애인 열람실의 컴퓨터에 음성지원프로그램을 설치를 요청합니다.
- ④ 명지대학교 도서관열람실 좌석 예약 어플 앱 접근성 개선을 요청합니다.

- ⑤ 학내 키오스크에 점자 키패드, 시각장애이용 음성안내 기능 설치를 요청합니다.
- ⑥ 본관, 경상관, 학생회관에 미부착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추후 점자라벨의 지속적인 관리 또한 요청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명지대학교 점자라벨 부착 현황

1. 본관(2층~9층)

-2층

- S1201, S1207, S1209, S1213, S1250, S1254, S1258, S1227, S1232, S1233, S1239, S1241, S1245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S1246 교실에 부착된 점자라벨 훼손 위험

-3층

- S1351 교실을 제외한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4층

-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5층

- S1539 모의법정 교실을 제외한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6층

-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7층

- 장애인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붙인 S1712(교수 연구실) 외에 부착 X
- 특히 주요 이용 시설인 S1701(인문대학 교학팀), 인문대학 열람실에 점자라벨 부착 X(인문대학 열람실은 입구 옆 아크릴판 자체가 없음)
-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되어 있음

-8층

-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되어 있음

-9층

- S1919 인문대학 강의실, S1950 인문대학 강의실, S1954 철학과 강의실, S1958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강의실을 제외한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10층

- 층 전체 모든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2. 학생회관

- 1층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되어 있음

- 4층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 4층 여학생 휴게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X

3. 경상관

-3층

- S4327 방목기초교육대학 강의실을 제외한 층 전체 교실에 점자라벨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과 점자블록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9층

- 모든 열람실에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X

-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여 위치 파악이 힘들고 화장실 앞 쓰레기통에 부딪힐 위험성 있음

4. 행정동

-엘리베이터

- 점자가 있는 상/하 버튼이 1층에만 있고 다른 층 상하 버튼에는 점자가 없음

- 버튼에 향균 필름이 부착되어 있고, 필름이 어그러져 점자를 인식하기 어려움

- 층수 버튼 옆 점자라벨 부착되어 있으나, 2층 옆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음

-1층

-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 교직원 앞 점자라벨의 가장자리가 약간 떼어진 흔적

- 부착한 점자라벨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 필요

-5층

- 화장실 앞 점자라벨, 점자블록 모두 부착 X, 남녀 화장실 분간하기 어려움

- S5514 입구 아크릴 판 없어서 당사자가 세콤 단말기 위에 점자라벨 부착

- 시험이나 행사가 많은 강당 점자라벨 부착 X

끝.